목포시, 항구버스킹으로 거리공연 활성화 기대

평화광장·근대역사관1관 광장·항구포차
매주 금·토·일요일 다양한 공연 선보여

목포시가 '2022 목포항구버스킹'을 '예술을 가까이, 일상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평화광장, 목포근대역사관 1관 광장, 목포항구포차에서 추진한다.

목포항구버스킹은 1·2차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버스커들이 케이팝(K-POP) 커버댄스, 7080가요, 재즈, 태권도 아크로바틱, 마술, 팝페라, 악기연주,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고 재미있는 공연을 매주 선보인다.

시는 매년 목포항구버스킹을 통해 관광객과 시민에게 실력있는 버스커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도시이자 예향(藝鄕)으로서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지역 버스커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목포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콜라보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찾아가는 버스킹과 주제가 있는 거리공연을 선보이며, 오는 8월부터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매주 금요일 노을공원에서도 추가·운영한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 오후 6시 평화광장 야외무대에서 민선8기 출범을 기념해 밸리댄스, 전자바이올린, 팝페라 등이 포함된 특별기획공연을 개최해 2022년 목포항구버스킹 활성화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시민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시 관계자는 "목포항구버스킹을 통해 목포 곳곳에서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거리예술공연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태 기자

목포시가 '2022 목포항구버스킹'을 '예술을 가까이, 일상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평화광장, 목포근대역사관 1관 광장, 목포항구포차에서 추진한다. /목포시 제공

무안군,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신규설치 완료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적측량 시 정확한 측량성과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와 신규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토대가 되는 좌표로 측량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돼 각종 개발사업, 개인 간의 매매목적 측량 등에 활용되는 기준점이다.

군은 지난 3~6월 지적기준점 3천545점(지적삼각점 19, 지적삼각보조점 41, 지적도근점 3천485)을 대상으로 망실 또는 훼손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로굴착·포장,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망실 또는 훼손돼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적기준점은 폐기했으며,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 신규 설치한 기준점 296점은 고시 후 측량에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적행정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민재 기자

신안, 2022년 섬 민어 축제 개최

29~30일 이틀간 임자도서 열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국내 최대의 백사장을 자랑하는 홍매화의 섬 임자도에서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2022년 섬 민어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행사로는 난타 및 댄스공연을 시작으로 민어 회썰기, 민어회 비빔밥 만들기, 수산물 깜짝 경매 등이며, 부대행사로는 민어·홍매화·튤립 페이스페인팅, 민어 음식 시식, 농·수 특산물 홍보 및 판매관 운영 등으로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민어는 여름철 대표 수산물로 소화 흡수가 빨라 어린이의 발육촉진에 좋을 뿐만 아니라 기력이 쇠약한 노인이나 큰 병을 치른 환자의 체력 회복에도 특효를 자랑한다.

특히, 신안 민어는 예로부터 임금에게 진상될 정도로 최고급 어종으로 꼽힌다.

또한, 자산어보에 '민어는 익혀 먹거나 날것으로 먹어도 좋으며, 말린 것은 더욱 좋다'고 기록될 만큼 민어회, 민어탕, 민어찜, 건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미네랄이 풍부한 청정바다에서 잡히는 신안 민어를 맛보고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의 민어 조업 어선은 140여 척으로, 연평균 400여 톤 65억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으며, 올 7월 현재 어획량은 총 13톤으로 소비자가격은 1kg당 3만8천원 선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홍근 기자

영암, 코로나19 4차접종 적극 참여 당부

영암군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어 감염병 재유행 대비 코로나19 4차접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60대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요양(정신)병원·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에서 50대 연령층, 18세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장애인 및 노숙인 생활시설까지 확대된다.

이번 접종대상자 확대는 시간경과에 따른 예방접종효과 감소, 기존 감염자의 자연면역저하,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재감염사례 증가 추세로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예방을 위해 필요성이 대두됐다.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또는 노바백스로 3차접종일 4개월 이후 접종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 3개월 이후 또는 3차접종 후 4개월 중 더 늦은 시점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당일접종 및 접종예약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했으며 당일접종 희망 시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확인 후 접종 가능하다.

예약방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nip.kdca.go.kr) 또는 보건소 콜센터(061-470-2107~8), 읍·면사무소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후 8월 1일부터 접종 할 수 있다. /이유빈 기자

함평군,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착공

함평읍 소재지 침수피해 예방 위해 313억 투입

함평군이 함평읍 소재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비 313억원을 투입,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을 신규 착공한다.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하수관 용량 부족으로 침수피해를 겪었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하수관 용량을 확장·정비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4년까지 함평리, 내교리, 기각리 등 함평읍 소재지인 일원에 하수관로 신설(1천978m), 기존관로 개량(2천154m), 배수펌프장(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학교면, 월야면, 대동면 3개 지역 소재지에 대해도 환경부 주관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에 선정됐으며, 사업비 44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강진, 박병철 신정면장 취임

강진군 신전면은 최근 신전면사무소 2층대회의실에서 제19대 박병철 신전면장의 취임식을 거행했다.

박면장은 지난 1991년 5월 성전면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2008년 7월에 6급 승진 청자육성팀장 환경정화팀장 재산관리팀장 해양개발팀장 농정팀장에 이어 2021년 7월 1일 사무관으로 승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쳐 2022년 7월 19일 신전면장에 부임했다.

박병철 면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고향 발전에 전력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장실은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재본부 윤규진 기자